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족한 줄로 매기라 (디모데전서 6:6-10)

###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이 거행됐다. 사진=유튜브(KBS News) 캡처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이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거행됐다.

조계종 봉축법요식은 이날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여섯 가지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공양,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치기 위해 복과 종을 올리는 명고와 명종, 번뇌와 탐욕을 씻어내는 관불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축사에서 “오랜 불교 전통을 유지해 온 미얀마의 사태는 우리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고 있다.”며 “미얀마 당국은 북방의 부처님 오신 날인 (음력) 4월 초파일(5월19일)부터 남방의 부처님 오신 날인 4월 보름(5월26일)까지 모든 적대행위의 중단을 선언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때나마 훈풍이 불었던 남북관계도 식어가고 있다.”며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길이 열리도록 불교계가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법요식에 이어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부처님 오신 날 기념공연 <뚜껑 없는 열차>가 펼쳐졌다. 무료로 열린 이 공연은 지금 시대 젊은이가 우연한 기회에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순심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았다. 조계종 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새기기 위한 공연”이라고 설명했다.

얼마 전 여러 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실은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가난한 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방을 하다보면 그만하면 충분히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가정, 그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불행하게 사는 것을 때때로 발견합니다.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켜 스스로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행복을 행복으로 누릴 줄 아는 지족, 즉 족한 줄로 여기는 생활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람직하게 사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족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세상에 와서,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야하는 인생입니다. 한자로는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요, 스페인의 격언으로는 “수익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다미엔 신부를 기억합니다. 이 분은 평생 외딴 섬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 살다가 자신도 그 병에 걸려 숨을 거둔 분입니다. 이 분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바치고,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왔다가 또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가야하는 인생임을 생각하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가진 것에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족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진 것에 족한 줄 아는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족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지로 부자가 되려고 해서 안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

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역지로 부해지려고 해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었도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결코 돈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이 물질,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 이미 받은바 은혜와 축복을 족한 줄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사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족한 줄로 여기라, 오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식 목사-

#### 날말퍼즐 정답

	1 팔	2 뚝		3 한	글	4 날
5 뒤		6 배	지	7 기		치
8 태	9 크	기		자	10 세	기
	락		11 재	래	종	
	12 왕	세	13 자		대	
14 민	생		명	15 주	왕	16 산
둥			17 고	드	름	채
18 산	허	리		19 살	집	

##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
- IRA'S IRA Rollover
-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 감사대행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